

전남개발공사, 도민 생활밀착형 복지 실천 주목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5억 기탁 지역사회 누적 기부금 총 200억원 귀감

전남도 산하 공기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도민 생활밀착형 복지 실천이 주목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27일 전남도청에서 도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5억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중태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티타임,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개발공사의 복지기동대 지원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기탁금을 포함한 누적 지원금은 총 18억원이다. 기탁금은 전남 22개 시·군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생활불편 해소 등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4일 나주시 봉황면 일원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합동으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장으로부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지역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지원금 5억원을 기탁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에는 전남개발공사 으스스(ESG)봉사단 16명을 비롯해 전남도 지역복지

팀, 나주시 복지환경국, 봉황면 맞춤형복지팀, 소방서, 나주 복지기동대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2개소를 대상으로 집 안팎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

다. 또한 전기배설, 이불, 선풍기 등 생활가전과 생필품을 후원하고 안전 예방활동을 병행하며 대상 가구의 생활편의와 안전 확보를 지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전남 곳곳에 후원과 나눔을 이어오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에도 이달 8일 2026여성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기부 5억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누적 기부금은 총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기탁해준 전남개발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도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전남의 대표 생활복지 사업으로 복지기동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에 함께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진보,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4곳 모두 출마

남구1 김혜란·북구1 이재광·북구2 윤민호 광산3 최경미...최소 1석 확보 목표 총력

진보당 광주시당은 27일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4곳에 후보를 내고 최소 1석 확보를 목표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구1 김혜란, 북구1 이재광, 북구2 윤민호, 광산3 최경미 후보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출마자 4인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한다”며 “시의원 중대선거구 3~4인 중 최소 1석은 진보당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 정치가 30년 1당 독점을 끝내고 진보-민주 양 날개로 비상해야 할 때”라며 “반드시 당선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라는 중대선거구 취지를 살려내고 광주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 폭에 대해 “최소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할 광주 광역의원 정수가 고작 4명 늘어나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광주와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책임



과 무능에 대해 시민들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표의 등가성, 비례성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까지 무시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기득권 강화의 도구로 변질시킨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싸움이 욕심을 버리고 최소 1명 무공천 결

단을 보여달라”며 “무공천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도의적 책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보당은 국회의원 수와 지역 의원 수, 출마자 수, 당원 수, 지역 활동력 등 5대 지표에서 호남의 확고한 제2당”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의회에 진보당 후보 15명을 당선시켜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 기자

민주 화순군수 후보에 임지락 도의원

22개 시·군 단체장 후보 경선 마무리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임지락(사진) 전남도원이 선출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결선투표 결과, 임지락 후보가 윤영민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화순군수 경선 결선투표는 지난 15일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재투표로 실시됐다. 재투표의 경우 기존 ‘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이 아닌, ‘권리당원 20%+일반 여론조사 80%’ 방식으로 변경해 치러졌다.

민주당은 화순을 마지막으로 전남 2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을 마무리했다.

/김재정 기자

명창환 여수시장 예비후보 ‘시민펀드’ 출시

조국혁신당 명창환(사진)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27일 “시민 참여형 선거자금인 ‘시민펀드’를 출시, 이날부터 본격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거펀드는 시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약정된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구조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 변화 주제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펀드 목표 금액은 1억원 규모다. 연 3.0%의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3만원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명 후보는 펀딩 금액을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총당에 오는 8월10일 이내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명창환 후보는 “시민펀드는 단순한 자금 모집을 넘어 시민이 직접 정치 변화의 주제로 참여하는 과정”이라며 “여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깨끗하고 당당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우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161(두암동)
http://farmersbank.nonghyup.com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믿고 찾는 든든한
우리지역 희망동행 광주농협

- 본 점 : 250-5000
- 동 광 지 점 : 266-7144
- 오 치 동 지 점 : 264-0341
- 풍 향 지 점 : 512-4004

- 서 방 지 점 : 521-9731
- 충 효 지 점 : 266-6620
- 두 암 동 지 점 : 263-6619
- 산 수 동 지 점 : 232-6956

- 문 화 동 지 점 : 263-0537
- 중 흥 동 지 점 : 265-9676
- 문 흥 동 지 점 : 268-7011
- 매 곡 동 지 점 : 573-4111

- 밤 실 지 점 : 251-3701
- 일 곡 지 점 : 571-8000
- 용 주 지 점 : 528-4100
- 영 농 자 재 센터 : 267-5653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 오 치 점 : 250-4661
- 동 광 주 점 : 269-5100
- 두 암 점 : 250-5127
- 충 효 점 : 266-6630